

#해시태그

주식전략.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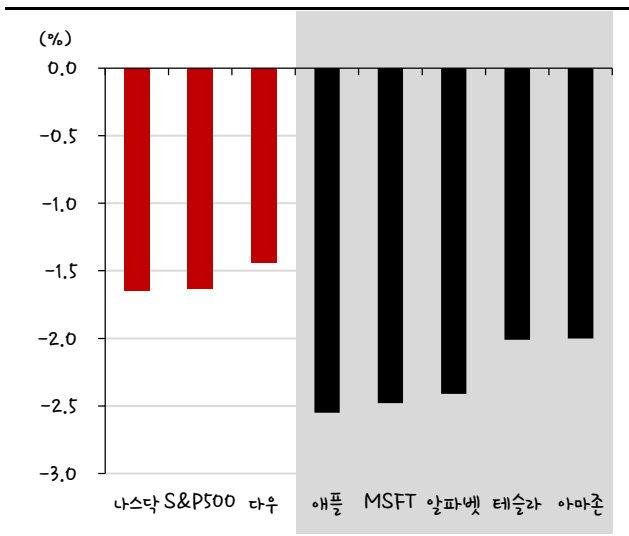


2020-10-20

해 (解,답)가 없는
시 장을
태 연하게
그 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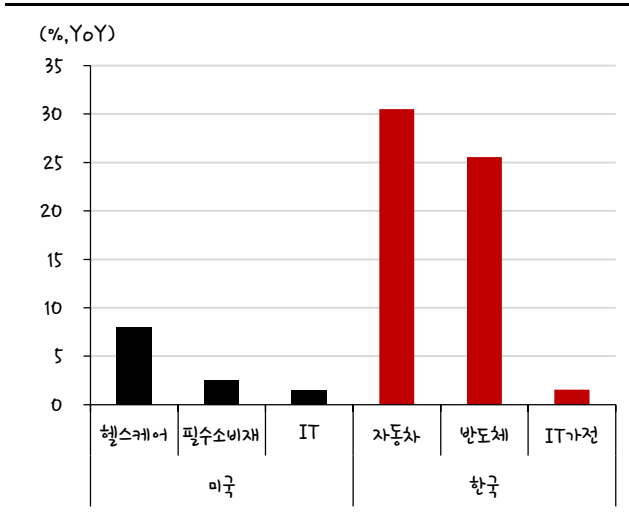
4 천억달러의 간극

부양책 추이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당의 입장 차이



자료: 미국 재무부, SK 증권

3 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외 업종



자료: Factset, Quantwise, SK 증권 / 주: 미국은 매출액 기준, 국내는 당기순익 기준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이번에도 하락의 주범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협상 난항이다. 지난 7 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5 차 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규모를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협상 초기 3 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2.2 조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1 조달러 규모를 요구하던 백악관과 공화당은 최근 1.8 조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5 차 부양책 타결이 미뤄지면서 증시가 흔들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급해졌고,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오히려 느긋해진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시한을 20 일로 못박으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4 천억달러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증시 안정에 중요한 변수다.

지난 자료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추가 경기부양책이 대선 전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봉쇄령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3 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령 대선전에 통과되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누가 당선되도 경기부양책은 우선순위일 수 밖에 없다. 연준(Fed)도 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부양책이 늦으면 경제 회복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즉, 방법과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부양책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결국 미국 대선 전까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높지만, 부양책 협상과정에서의 노이즈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요소는 아니다. 대선 결과가 아직 예측불허인만큼, 두 후보별 유/불리 업종에 대한 투자전략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실적에 근거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증시에서는 IT 와 헬스케어 업종이, 국내증시에서는 반도체, IT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다.